
포항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최지욱*

2021. 12.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Tel : 054-289-2851, jiuk.choi@bok.or.kr)



목 차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포항지역 청년 인구동향 및 고용현황	2
III. 포항지역 청년 고용현황 특징	7
IV. 포항지역 청년관련 정책 현황	12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7

< 참고자료 및 문헌 >

<요 약>

(검토 배경)

- 최근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수 회복을 위해서 매년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나, **포항지역 청년 고용률**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이에 본고에서는 포항지역 청년 인구 및 고용현황과 청년관련 정책을 살펴본 뒤 청년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모색

(포항지역 청년 인구동향 및 고용현황)

- (인구동향) 2021년 11월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9,358명으로 포항지역 전체 인구(503,388명)의 15.8%를 차지하며, **인구이동 관점**으로 보면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
- (고용현황)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성별로 나누어 보면, 고용률 감소폭은 여성이 더 컸으나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청년 여성의 인구유출 심화로 남성 대비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폭 감소**

(포항지역 청년 고용현황 특징)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반기별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포항지역 청년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구직단념자 비중 증가) 청년 일자리 불일치(mismatch)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추가 악화로 인해 구직단념자 비중이 증가
 - (실업률의 꾸준한 상승)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실업자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포항지역 청년 실업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 고용 안정성 및 임금 보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었다가 올해 들어 개선되는 모습
- (여성의 저조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조업 중심의 생산구조 측면 및 도·소매업 부진 등으로 인해 타 시·도와 다르게 여성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대비 낮음

(포항지역 청년관련 정책 현황)

- 「포항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통해 포항지역의 청년관련 고용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의 양 측면에서, 대부분의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사업은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
 - 고용의 질 측면에서, 포항지역은 **일자리 공감페이(Pay) 지원사업** 및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 고용정책 이외에는 **청년층 주택지원 사업**이 있으며, 올해 9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향후 다양한 부분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이 본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종합평가 및 시사점)

- 포항지역 **청년 노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에서 **악화**되어,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청년관련 지역고용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고용의 양)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노동수요 반영 및 **일자리정책 다양화**를 추진
 - 미스매치를 통한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및 **민간수요**를 **보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수요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미스매치 완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대중교통노선 확대, 쇼핑·문화·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유치 및 발굴, 주택지원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주거 및 교통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항지역 내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

○ 또한 「포항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 고용 관련 일자리사업이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직접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청년 부분으로도 확대할 경우 최근 **경력직 위주 채용의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청년 고용 개선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용의 질) 현재 포항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확대**를 고려

○ 현재 포항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공감페이(Pay) 지원 및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카드 혜택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조건 확보**에 기여

○ 이외에도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청년 수를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가능

I. 검토 배경

□ 포항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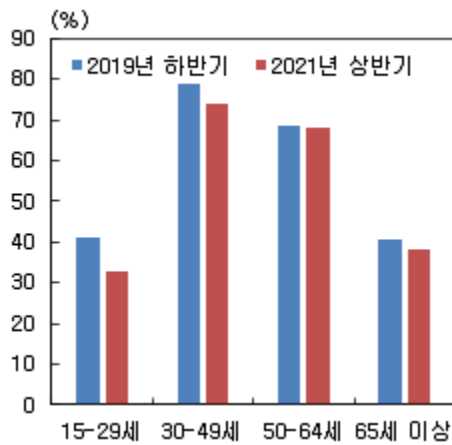
* 통계청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15~29세로 정의

○ 포항지역 청년 고용률은 2019년 하반기 41.2%에서 2020년 상반기 32.1%로 하락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 30.1%, 2021년 상반기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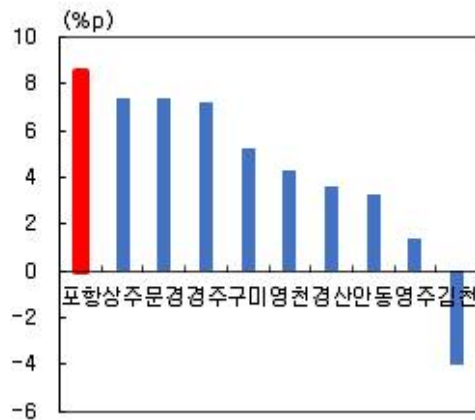
— 여타 연령층(30~49세, 50~64세, 65세 이상) 고용률은 코로나19 이후 소폭 하락한 수준

포항지역 연령별 고용률 변화



자료 : 통계청

코로나19 전후 청년고용률 감소폭¹⁾



주: 1) 2019년 하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감소폭

자료: 통계청

□ 일자리창출은 현재 포항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수 회복에 필수요소임을 고려할 때, 고용률 하락은 그 의미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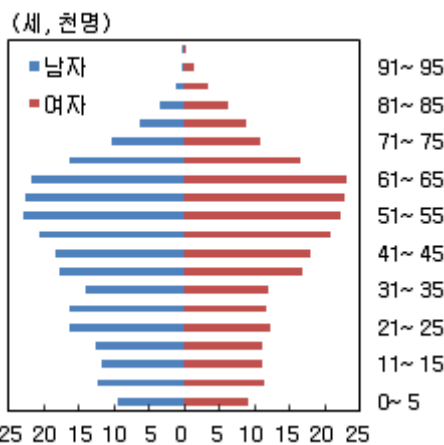
⇒ 이에 본고에서는 포항지역 청년 인구동향 및 고용현황을 살펴본 뒤, 포항지역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는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청년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후 청년 노동시장 개선방안 모색

Ⅱ. 포항지역 청년 인구동향 및 고용현황

1 포항지역 청년 인구동향

- 2021년 11월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9,358명으로 포항지역 전체 인구(503,388명)의 15.8%를 차지
 - 성별로는 남성 44,718명, 여성 34,640명으로 남녀성비는 56:44 수준
 - 총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월 19.5%에서 2021년 11월 15.8%로 지속적으로 감소
 - 여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인구가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

포항지역 인구 피라미드¹⁾



주: 1) 2021년 11월 기준

자료: 통계청

포항지역 청년 인구 및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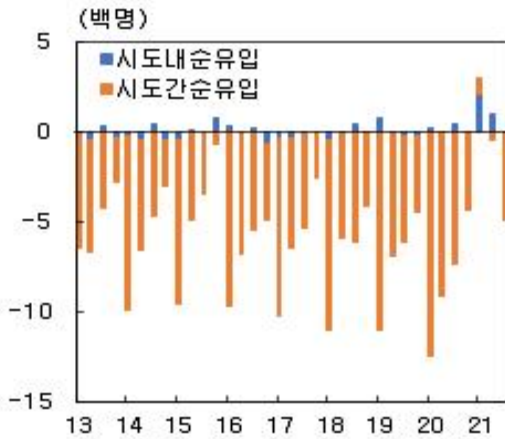
주: 1) 총 인구대비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 인구이동 관점으로 보면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
 - 전입·전출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대부분 유출
 - 전출 사유로는 직업 및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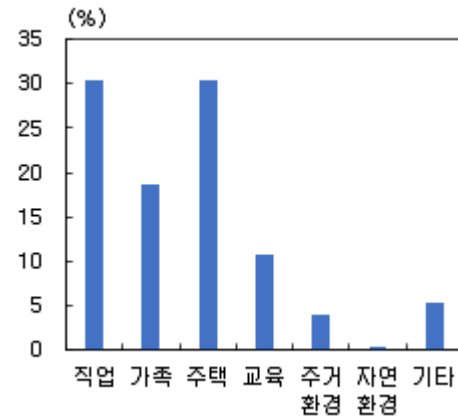
- 한편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효과로 21년 상반기에는 소폭의 유입세를 보임(1분기 294명, 2분기 46명)

포항지역 청년 인구 순유입 현황



자료: 통계청

포항지역 청년 인구 전출 사유¹⁾



주: 1) 2020년 만 15~29세 인원 중 타 지역 전출자 기준
자료: 통계청

2 포항지역 청년 고용동향

- 2021년 상반기 기준 포항지역 청년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고용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

포항지역 청년 생산가능인구 및 고용구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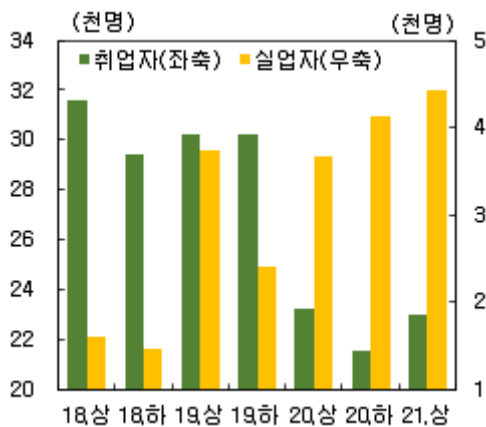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포항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청년 고용여건 악화 및 일자리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취업자 감소 및 실업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한편 실망노동자 효과*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이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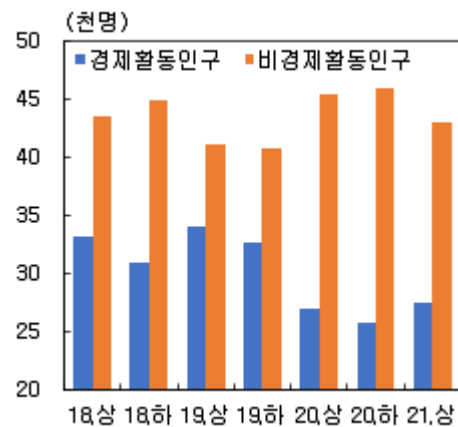
*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단념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포항지역 청년 취업자 및 실업자 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포항지역 청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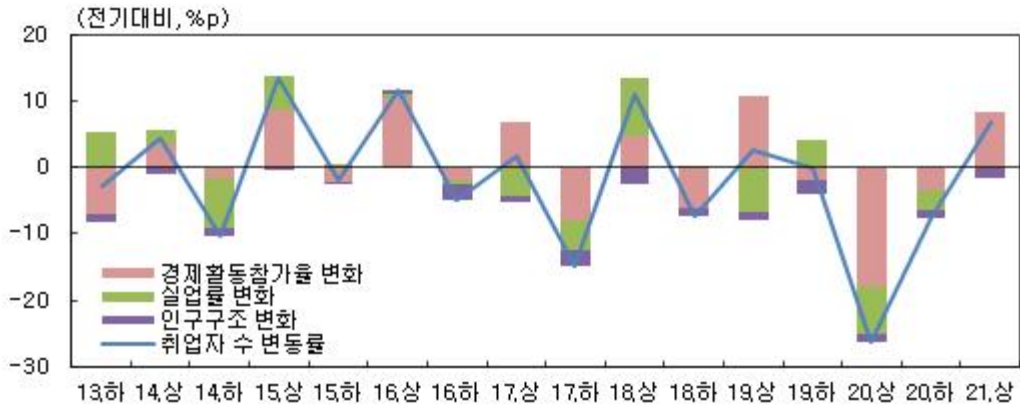
○ 포항지역 청년 취업자 수 변동률 요인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경제활동 참가율(노동공급 요인) 하락 및 실업률(경기변동 요인) 상승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

* <참고 1> 취업자 수 변동률 요인별 분해 참조

— 2020년 하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청년 취업자 수 반등(21.5만명 → 23.0만명, +1.5만명)은 대부분 노동공급 증가(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기인

— 한편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코로나19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며, 이는 취업자 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침

포항지역 청년 취업자 수 변동률 요인 분석



자료: 한국은행 추산

<참고 1>

취업자 수 증감 요인별 분해

- 박창현·유민정(2020) 등을 참조하여 취업자 수 및 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음

$$o E = \frac{L}{N} \times \frac{E}{L} \times N = l \times (1 - u) \times N$$

(단, E는 취업자수, L은 경제활동인구, N은 생산가능인구, l은 경제활동참가율, u는 실업률)

=> 위의 식을 로그차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음

$$\Delta \ln E = \Delta \ln l + \Delta \ln(1 - u) + \Delta \ln N$$

— 위의 식을 바탕으로 취업자 수 변동률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 실업률 변화 +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이 가능함

- 취업자 수 변동률에 대한 각 요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o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 의사가 높을수록 취업자수가 증가하므로 **노동공급 요인**으로 해석 가능
- o 실업률 변화: 경기가 호조를 보일수록 혹은 노동시장 마찰이 작을수록 실업률이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므로 **경기변동 요인**으로 해석 가능
- o 인구구조 변화: 사망자 증가 또는 인구이동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고용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외생적·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 청년 고용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상반기 기준 남성*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에,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많음
 - * 남성: 제조업(33.3%), 운수 및 창고업(10.5%), 도매 및 소매업(10.5%) 등
 - ** 여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8.8%), 숙박 및 음식점업(18.5%) 등

○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감소폭은 여성이 더 컸으나 올해 들어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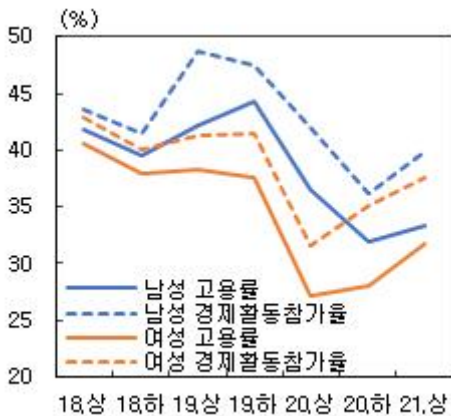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침체하면서 여성 고용이 크게 악화되었다가, 경기 정상화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
-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 후 점차 반등

* 고용률 = $\frac{E}{N} = \frac{L}{N} \times \frac{E}{L}$ = 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 각 영문자의 의미는 앞 페이지 <참고 1: 취업자 수 증감 요인별 분해>와 같음

○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청년 여성의 인구유출 심화*로 남성 대비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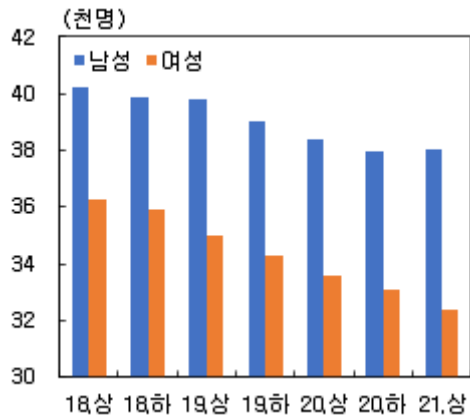
* 포항지역 15~29세 인구수 - 남성: 19.12월 46,945명 → 21.11월 44,718명(-2,227명)
 여성: 19.12월 37,313명 → 21.11월 34,640명(-2,673명)

포항지역 청년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포항지역 청년 생산가능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Ⅲ. 포항지역 청년 고용현황 특징

1 구직단념자 비중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내 구직단념자*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증가

*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적 사유 등으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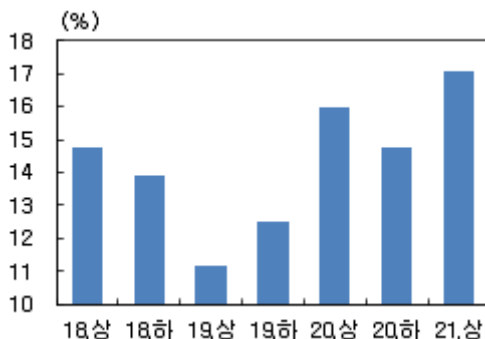
○ 청년 일자리 불일치(mismatch)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여건 추가 악화로 인해 구직단념자 비중 증가

— 구직단념자의 주된 비구직사유는 2020년 상반기에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6.2%), 하반기에는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33.3%), 2021년 상반기에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4.3%)로 확인

— 다만 코로나19 이후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따라서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다수의 인구가 구직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

* 포항지역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중’ 또는 ‘취업 준비중’ 응답 비율:
2018년 상반기 9.6% → 하반기 10.4% → 2019년 상반기 9.8% → 하반기 10.1% → 2020년 상반기 11.7% → 하반기 11.2% → 2021년 상반기 12.4%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내 구직단념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북동해안지역 인력사정 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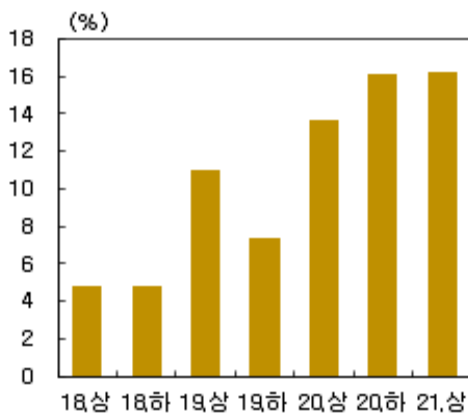
주: 1)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자료: 한국은행

2 실업률의 꾸준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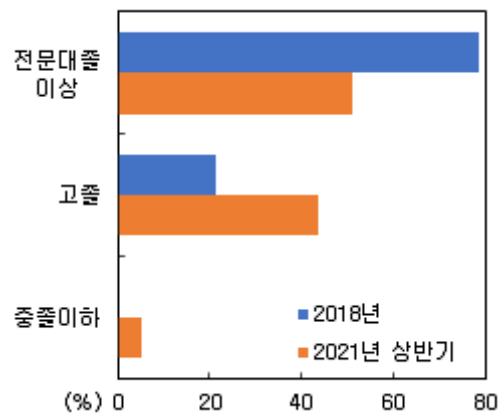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실업자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포항지역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
 - 청년 실업률은 2018년 4.8%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상반기 기준 16.2%를 기록
 - 경상북도(2021년 1분기 12.1%, 2분기 11.0%)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일자리 수가 감소하여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일용직 취업자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실업자 대상 이전 직장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개인, 가족관련 사유’ 및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사유가 대다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의 사유로 퇴직한 비중*이 증가
 - * 2018~2019년 0% → 2020년 상반기 14.9% → 하반기 12.6% → 2021년 상반기 8.6%
 - 교육 수준별로 보았을 때는 청년 실업자의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 이하 등 저학력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

포항지역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교육 수준별 청년 실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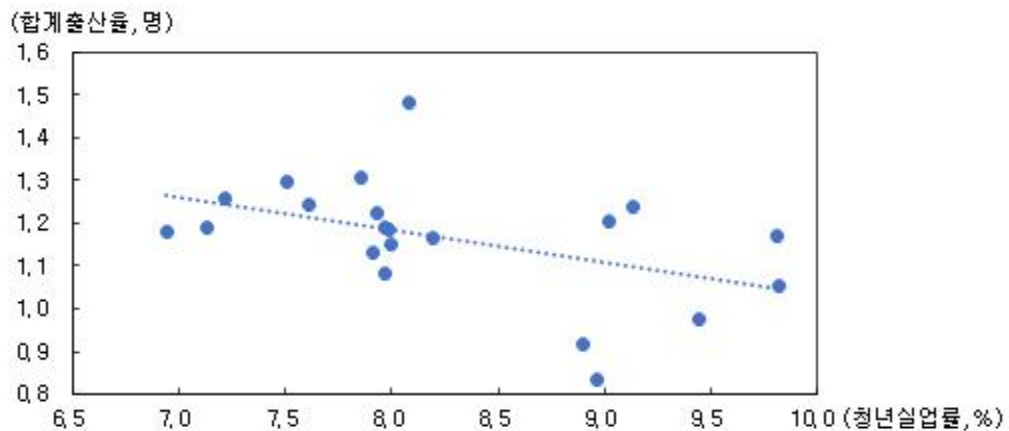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참고 2>

청년 실업의 노동경제학적 함의

- 청년기는 업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평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로,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는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수 있음(김남주, 2018)
-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은 출산율 저하를 통한 잠재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청년 실업률 상승은 지역경제정책 수립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청년 실업률 및 합계출산율¹⁾



주: 1) 전국기준, 기간: 2000년 ~ 2020년
자료: 통계청

3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

□ 고용 안정성 및 임금 보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었다가 올해 들어 개선

○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 소폭 감소

—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자가 구직 단념 뿐 아니라 2차 노동시장으로도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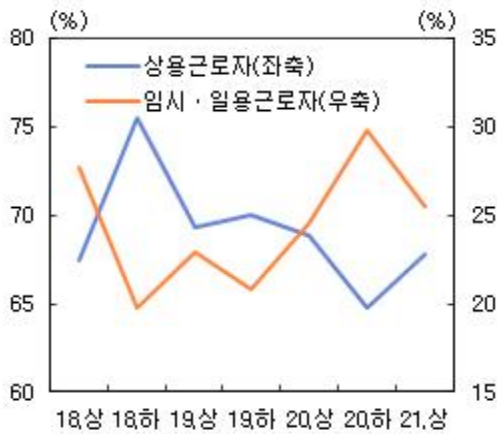
○ 최저임금이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가로 포항지역 청년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하락하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상승으로 전환

* 조사대상 당시 최근 3개월 평균급여(실질) 기준

— 한편 10분위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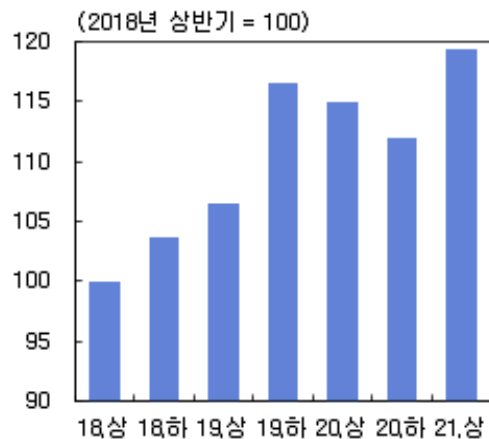
* 2019년 하반기: 상위 10% 임금 300만원, 하위 10% 임금 131.6만원
2021년 상반기: 상위 10% 임금 350만원, 하위 10% 임금 120만원

포항지역 청년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포항지역 청년 평균임금¹⁾ 추이



주: 1) 실질임금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4 여성의 저조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 포항지역 청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모습*

* 6p - <포항지역 청년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 참조

○ 청년기에는 남성의 군 복무기간 및 이후 사회적응기간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나, 포항지역의 경우 반대의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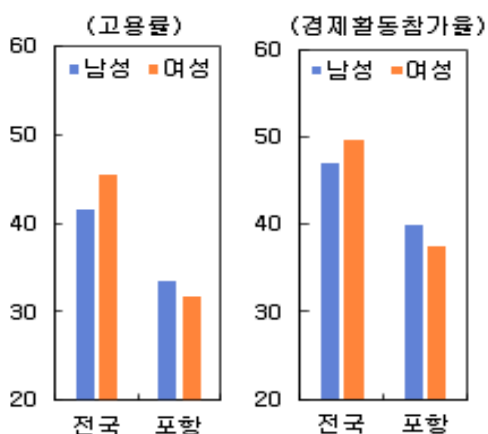
○ 위의 원인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구조 측면 및 도·소매업 부진 등이 존재

— (생산구조) 포항지역은 전국 대비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비교적 많음

* 2018년 GDP 기준, (전국) 제조업: 26.6%, 건설업: 5.4%
(포항) 제조업: 37.0%, 건설업: 5.8%

— (도·소매업 부진)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포항지역 도·소매업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여성 일자리 수에 악영향

성별 청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¹⁾ 경북동해안지역 도·소매업 업황 BSI¹⁾



주: 1) 2021년 상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추산



주: 1) 「좋은」 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자료: 한국은행

IV. 포항지역 청년관련 정책 현황

(포항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 포항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의거하여 2014년도**부터 「포항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지역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상호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 및 활성화 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업로드 기준

- 포항시는 일자리 전담부서조직(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노동과, 現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을 신설하고 2016년 7월 이후 다음과 같은 청년고용 관련 중점사업을 시행

청년고용 관련 중점사업 및 과제 (2017~2019)

년도	사업명	성과목표(명)
2017	중소기업 인턴 지원을 통한 청년취업	158
	창업기반 조성 (지역대학 내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10
	청년CEO 육성 지원사업	45
	기술인 우대사회 조성(청년마이스터 대전)	20
2018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24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경북권역 특성화고 학생 대상)	60
	중소기업 신규채용 건강검진비 지원(청년취업자 대상)	100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 카드	50
	청년창업존 조성	5
	청년창업사업 지원	45
2019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65
	철강산업기반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사업	50
	자투리시간 거래소 연계 직업훈련 지원사업	48
	청년 창업 LAB 구축 및 운영	25
	포항형 청년일경험드림 사업	35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원	67
	청년 퍼스트하우스(First House) 지원사업	50

자료: 포항시

청년고용 관련 중점사업 및 과제 (2020~2021)

년도	사업명	성과목표(명)
2020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80
	자투리시간 거래소 연계 직업훈련 지원	50
	청년 창업 LAB 운영 활성화	10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 카드	150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지원사업	100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	-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
	순환형 청년문화창업 특구 조성(청년 문화창업가 장기임대 운영지원)	-
2021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80
	청년 디지털 일경험드림사업	20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53
	1사 - 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	700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 카드	95
	청년 창업 LAB 운영 활성화	10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운영 지원사업(구 중소기업인턴사원제)	63
	산·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 등)	144
	청년CEO 육성 등 창업지원(청년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청년스타트업 지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지원, 청년농부 육성 및 귀농지원 등)	242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자료: 포항시

- 포항시는 2018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일자리가 있는 포항!!> 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후 청년 고용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꾸준히 계획

— 특히 2018년에는 포항청춘센터 개소, 청년 창업존 운영 등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운영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0.1%) 청년실업률이 감소*

* 2017년 상반기 8.9% → 하반기 13.0% → 2018년 상반기 4.8% → 하반기 4.8%
단, 2017년 9월 지역별고용조사 표본개편으로(2015년 경제총조사 반영) 해석에 유의할 필요

□ 고용의 양 측면에서, 대부분의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사업은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한 노동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특성 및 민간수요를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매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

—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내 산업구조·정책 및 고용동향에는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 및 종사자수, 포항지역 주요 산업정책 및 고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만 담겨있는 상황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내 산업별 고용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내 산업별 퇴사인력·구인 및 채용인원 등의 통계를 활용한 포항지역 노동시장의 민간수요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실제 사업 설계에도 반영할 필요

○ 미스매치 해소 이외에도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과 같은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정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연계

□ 고용의 질 측면에서, 포항지역은 일자리 공감페이(Pay) 지원사업 및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 위의 사업들은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청년 복지수당 카드의 경우 전년대비 올해 사업 목표인원 감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근로자가 감소

* 2020년 150명 → 2021년 95명,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은 동일

— 사업 목표인원 감소로 인해 지원자 접수 또한 연중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 복지수당카드 및 일자리 공감페이(Pay)의 사업비 및 혜택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청년층 주택지원)

- 현재 포항시는 청년 인구수 증가 및 지속가능한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층 주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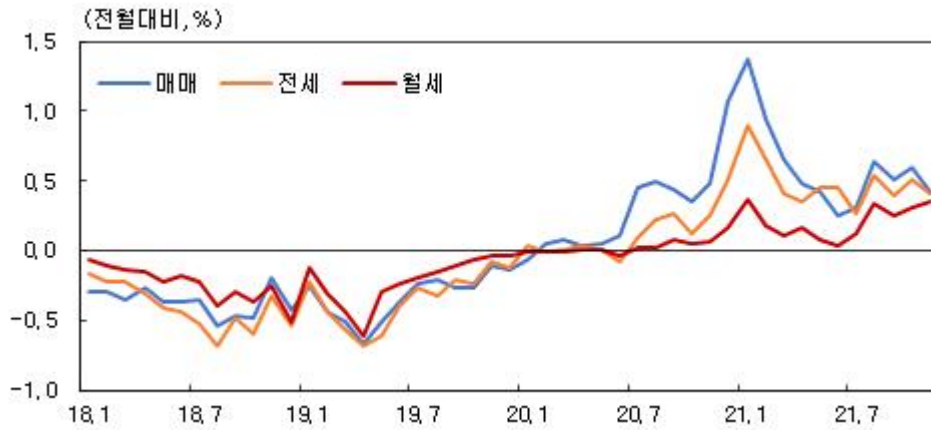
청년층 주택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내용
일월동 행복주택 (총 670세대)	남구 일월동(포항공항 인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 등 대상 행복주택 건설: 22.1월 청약 당첨자 발표, 23.3월 입주 예정
포항중앙 행복주택 (총 120세대)	(구)중앙초등학교 일원(포은중앙도서관 맞은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술인 등 대상 행복주택 건설: 21.3월 청약 당첨자 발표완료, 23.2월 입주 예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연소득에 따라 신규 전세대출금 이차지원(최대 연 3.0%, 최장 6년간)
청년퍼스트하우스 지원사업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임대기숙사 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1년간)

자료: 포항지역

- 최근 포항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전세 및 월세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 주택지원 확대는 주거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청년층 주택지원은 정주여건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평균임금 상승이 더딘 상황에서 주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역 정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지원 이외에도 공단 인근 기숙사 설립 직접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포항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률¹⁾



주: 1) 2021년 6월부터 조사기준일 변경(매월 15일 → 익월 1일)에 따라 2021년 6월 증감률은 5월 15일 ~ 7월 1일의 증감률임
 자료: 한국감정원

(기타 청년관련 정책)

- 포항시는 청년기본법을 반영한 「포항지역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이루어지며,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구성원
 - 현재 지역 내 청년단체 회원, 취·창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 중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다양한 부분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를 수행할 예정
- 또한 청년 직장인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포항지역 청년 노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에서 악화
 - 지속적인 청년 인구 감소가 청년 취업자 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기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및 실업률 상승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
 - 또한 고용 안정성 및 임금 보상 등 질적인 측면 또한 악화된 후 올해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 청년 고용의 양과 질 모두를 제고할 수 있는 청년관련 지역고용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고용의 양)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노동수요 반영 및 일자리정책 다양화를 추진
 - 포항시는 올해 들어 청년 일자리 수 확보에 더욱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및 민간수요를 보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수요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미스매치 완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대중교통노선 확대, 쇼핑·문화·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유치 및 발굴, 주택지원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주거 및 교통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항지역 내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

- 또한 「포항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 고용 관련 일자리사업이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직접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현재 포항지역의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부분 여성, 다문화가족 및 노인·장애인이 대상이며, 이 부분을 청년 부분으로도 확대할 경우 최근 경력직 위주 채용의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청년 고용 개선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용의 질) 현재 포항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확대를 고려

- 현재 포항시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공감페이(Pay) 지원 및 포항형 청년 복지수당카드 혜택인원을 늘림으로써 많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조건 확보에 기여할 필요
-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청년 수를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가능
 - * 지역 미취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 기회를 제공한 후 정규직 고용 시 기업과 인턴 모두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이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참고자료 및 문헌>

- 김남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 25권 제2호, 한국은행, 2019.6, pp.96-131
- 김다애, “인천지역 고용의 변화 및 특징”,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1.8
- 김수지, “최근 강원지역 중장년층 고용 상황”, 한국은행 강원본부, 2021.3
- 김용현, “대구경북 일자리 구조의 특성과 현황 및 정책대안”, 연구 2020-46, 대구경북연구원, 2020.11
- 김을식·정원경, “경기지역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1.11
- 김종원·양준빈,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 변화 요인 및 고용의 질”,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0.7
- 김주영·오지윤, “경기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0.12
- 배성종,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배경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8.1, pp.29-58
- 이상아·이승윤,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한국노동연구원, 2018.6, pp.27-59
-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 25권 제1호, 한국은행, 2019.3, pp.66-122
- 함선유 외 2인,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5

포항지역청, <http://www.pohang.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